

정읍시, 중소기업에 25억 특례보증

지방 이진·농식품 분야 기술 보유·고용 창출 기업 등 대상
3년간 대출 금리 2.0% 지원...재원 소진땀 신청 조기 마감

정읍시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지역 주력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비롯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

기업,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지원 자금을 이미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시가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에 추천서를 발급하면,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심의를 거쳐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NH농협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

출금리 우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읍시는 여기에 더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출 금리에서 2.0%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까지 제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대폭 낮춰줄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까지이지만, 총 25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관심 있는 기업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다시 지역 발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 신태인 지역 농가 숙원 '콩 종합처리장' 가동

우령리 일원 총 24억 투입
시간당 3t 처리 능력 갖춰

정읍 신태인 지역 콩 재배 농가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현대식 콩 종합처리장이 문을 열었다.

신태인농협(조합장 황위중)은 신태인을 우령리에서 '신태인농협 콩 종합처리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콩 종합처리장은 시 예산 6억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88.62㎡ 규모로 조성됐다. 이 시설에는 최신 색채선별기와 입자선별기, 기타 다양한 선별장비가 완비돼 시간당 3t의 콩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콩 종합처리장의 신축으로, 그동안 생산한 콩을 선별하기 위해 관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하며 위탁해야 했던 인근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품질 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작업 편의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황위중 조합장은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지난 14일 신태인농협이 운영하는 '신태인농협 콩 종합처리장'의 준공식이 열렸다. <정읍시 제공>

등으로 지역 내 콩 재배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콩 종합처리장 준공이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공동선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신태인농협 콩 종합처리장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군 '월 30만원 수익'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무장면 송정마을 등 5곳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

고창군이 월 최대 30만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본격 운영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무장면 송정마을을 비롯해 5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고창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우선 선정해 마을창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했다. 군은 올해 말까지 10여개 마을 중 200kW 정도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은 마을 협동조합의 통장으로 적립돼 어르신 복지, 마을회관 운영, 마을 행사 등 공동 기금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마을당 설치용량에 따라 월 15만~30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에너지 자립마을을 늘려나감에, 마을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에 갈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송정마을을 비롯한 자립마을은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에너지 자립마을의 시작점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마을이 주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IC칩 주민증 발급 수수료 면제

전북 지자체 첫...14개 시·군 주민행복센터서 신청



심덕섭 고창군수(오른쪽 두번째)와 성홍제 주민자치위원장(세번째)이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전북 지역 최초로 집적회로(IC·integrated Circuit) 칩 내장 주민등록증(이하 'IC칩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IC칩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2종류 수단 중 하나로 스마트폰에 해당 실물증을 태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는 실물증 발급비용 5000원과 IC칩 비용 5000원, 총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고창군은 경기 불황 속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IC칩 비용의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민은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1회에 한해 IC칩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공공자 등 법령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IC칩 주민등록증 발급 횟수와 관계없이 기존과 같이 전액 면제된다.

IC칩 내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관내 14개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이면 IC칩 비용이 면제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 1매와 기존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지문인식 불가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한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다음달 20일까지 집중 징수

남원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 정리 기간에 총체납액의 24%인 11억 25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실의재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체납자 실태조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

남원시는 전체 체납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동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교통정보, 앱으로 실시간 확인

버스 노선·공영주차장 위치 등

남원시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와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 정보이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에 맞는 버스 노선과 도착 시각을 확인하고, 주변의 공영주차장 상태와 위치를 즉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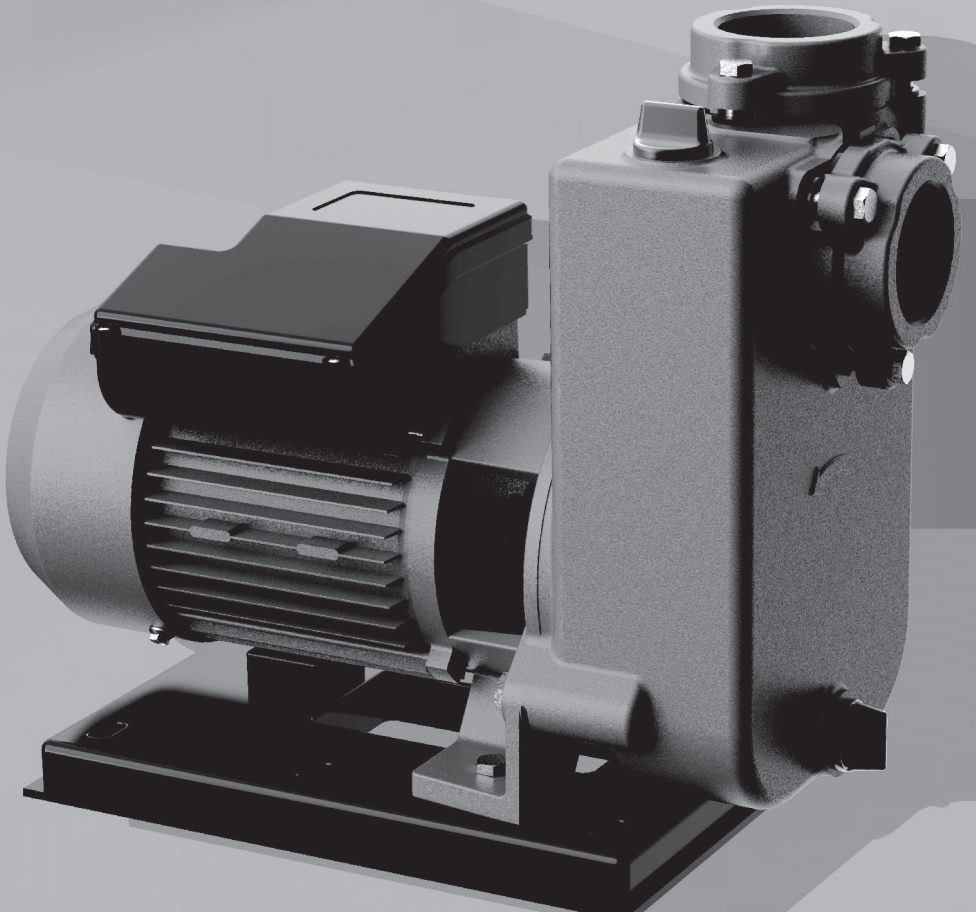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주차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어플리케이션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평소 이용객이 많은 주요 승강장 70곳을 선정해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각종 시장 소식지에도 어플리케이션 설치용 QR코드를 삽입해 설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